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20권 1호 (2019. 4) pp. 29~41 https://doi.org/10.35133/kssche.20190430.03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20 Iss. 1 (April, 2019)

대학생의 성격특성 및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강향숙*†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Drink Motivation on Drink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in-Jung, Kim*·Hangsook, Ka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Object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rink motivation, and drinking behavior.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behavior.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0 college students(male: 50, female: 160) attending a university in Chungnam.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rink motivation, and drinking behavior scale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s.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college students' neuroticism and extrovers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rinking behavior. Also, college students' social motivation and coping motiv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rinking behavior. Especially, social motiv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neuroticism and extroversion and drinking behavior. Coping motivation ful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neuroticism and extroversion and drinking behavior.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irectly influence the drinking behavior, but they found the influence on the drinking behavior through the drink motivation. In particular, it is very necessary to intervene in the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programs that can intervene in drink motivation for college students with neurotic characteristics.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접수일 : 2019년 03월 13일, 수정일 : 2019년 04월 05일, 채택일 : 2019년 04월 07일
교신저자 : 강향숙(310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Tel: 041-580-3054, Fax: 041-580-2924, E-mail: khs9033001@hanmail.net

Key words: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 drink motivati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Ⅰ.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문화이며,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음주를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대우를 받으며 다양한 음주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제약에서 벗어나 음주 자율성이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음주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정원철, 2006).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과도한 음주량을 나타내었다(양난미, 2010). 구체적으로는 19-29세의 연간 음주율은 89.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통계청, 2016), 대학생 집단에서의 고위험 음주율은 6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장수미와 경수영, 2013) 대학생 시기는 그 어떤 연령대보다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건강과 학업,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영복, 2014; 임선영과 고은영, 2017). 지금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음주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정원철, 2006), 이때 잘못 형성된 음주습관은 이후 성인기의 음주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음주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정주리 등, 2015),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음주행동과 관련된 선행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음주와 관련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개인적인 요인은 음주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이 중 음주동기는 대학생 음주문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 되고 있다(김인석 등, 2001). 음주동기가 높은 대학생들은 음주량이 많거나 음주빈도가 높으며(이규영과 이상익, 2000; 홍다솜과 양난미, 2013), 음주동기는 음주량과 음주문제 등의 음주 행동을 설명하고 개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경민과 이민규, 2005; 정주리 등, 2015).

대학생의 음주동기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교동기(김맹진, 2009; 박경민과 이민규, 2005; 박재영과 박상진, 2016; 탁진국, 2000; Grant et al., 2011; Theakston et al., 2004)와 대처동기(김종임, 2017: 박아름, 2015; 배성희와 양난미, 2015; Clerkin & Barnett, 2012); Kuntsche et al., 2005), 동조동기(Kuntsche et al., 2005), 고양동기(배성희와 양난미, 2015; Foster, 2014) 모두가 대학생의 음주행동과 연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마다 동기에 따른 음주행동의 차이는 있으나, 각각의 동기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음주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동기 외에 성격특성 역시 음주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적 경향성(김나경과 양난미, 2015; Littlefield et al, 2010; Malouff et al., 2007; Martin & Sher, 1994; Ruiz et al, 2003)과 외향성(배성희와 양난미, 2015; 서경현과 조은희, 2010; 탁진국, 2000)이 음주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반면 사회적이고 외향성이 풍부한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음주문제를 덜 나타낸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다(노안영과 정민, 2003). 이 외에도 낮은 우호성과 성실성(Malouff et al., 2007; Martin & Sher, 1994; Ruiz et al, 2003), 경계선 성격특성(임선영과 고은영, 2017)도 음주와 연관되고 있었다.

성격특성과 음주동기 역시 관련성이 있다.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걱정거리를 잊거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지적인 사람은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을 잘 알기 위해 음주를 한

다(탁진국, 2000). 또한, 대학생의 신경증은 동조동기 및 대처동기, 외향성은 동조동기, 그리고 개방성은 사교동기 및 고양동기, 친화성은 동조동기 및 대처동기와 관련성을 보인다(배성희와 양난미, 2015). 이처럼 음주동기는 음주행동에 이르는 최종 경로이자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Cox & Klinger, 1988; 신원우와 유채영, 2007 재인용),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음주동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정주리 등, 20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 성격특성, 음주동기 및 음주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음주동기는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적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이렇듯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격특성 및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음주는 다양한 변인과 선행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음주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성이 다르고, 음주를 하는 동기 역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생의 음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다면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음주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동기가 대학생의 성격특성 및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대학생의 음주동기가 성격특성 및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유발하는 성격특성과 음주동기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과 관계, 사회적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음주의 고위험 집단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5월,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210명(남자: 50명, 여자: 160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75명(35.7%)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67명(31.9%), 4학년이 46명(21.9%), 2학년이 19명(9.0%) 순이었다.

2. 조사도구

1) 성격특성

개인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Goldberg, 1999)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한 것을 윤미선(2010)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하며, 각 요인당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0문항이다. 문항의 예시로 신경증은 '쉽게 불안해진다.', 외향성은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개방성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친화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잘 낸다.', 성실성은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인 4점 Likert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신경증은

.866, 외향성은 .850, 개방성은 .732, 친화성은 .731, 성실성은 .790, 전체 성격특성은 .863이었다.

2) 음주동기

음주동기는 Cox와 Klinger(1988)의 음주동기 모형에 Cooper(1994)의 동조동기 문항을 포함하여 신행우와 한성열(1999)이 제작한 척도를 조은지(2016)가 사용한 척도이다. 본 척도 사교동기(social motivation), 동조동기(conformity motivation), 대처동기(coping motivation), 고양동기(enhancement motivation)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각 요인당 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6문항이다. 사교동기는 사교적인 활동이나 모임 등을 흥겹게 하고 즐기기 위한 동기, 동조동기는 주변인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소외당하지 않기 위한 동기, 대처동기는 개인적인 문제나 부적절한 정서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 고양동기는 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 각 문항들은 술을 마시는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응답은 각 문항이 가리키는 음주 상황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 1점부터 '거의 항상 마신다' 5점까지 5점 Likert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사교동기는 .943, 동조동기는 .763, 대처동기는 .935, 고양동기는 .854, 전체 음주동기는 .934이었다.

3) 음주행동

음주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알코올장애 간이 선별검사(AUDIT-K)를 사용하였다. 이는 위험 및 유해 음주자를 선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989년에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김용석(1999)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경험한 음주행위, 알코올 의존, 음주로 인한 폐해 등 3개 영역을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척도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를 하는 빈도나 음주의존도 및 유해한 사용이 높음을 의미하며, 전체 점수범위는 0-40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4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8년 5월에서 6월까지 충남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 및 취지, 설문 및 윤리적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지의 내용을 읽고 문항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에 철회 의사가 있는 경우는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진행된 설문지는 비밀보장이 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그리고 질문지 216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에서 216부 모두 회수되었다(회수율: 100%).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6부)을 제외하고, 총 210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합치도 산출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롯하여, 음주동기가 성격특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테스트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음주동기 및 행동에 대한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t = -.242 ~ 1.696, p 〉 .05), 이후 분석에서는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은 음주동기 중 사교동기(r = .147, p 〈 .05), 동조동기(r = .145, p 〈 .05), 대처동기(r = .314, p 〈 .001) 및 고양동기(r = .152, p 〈 .05) 모든 변인과 그리고 음주행동(r = .152, p 〈 .05)과도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외향성은 사교동기(r = .243, p 〈 .001), 대처동기(r = .158, p 〈 .05) 및 고양동기(r = .188, p 〈 .01), 그리고 음주행동(r = .214, p 〈 .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친화성은 동조동기(r = -.177, p 〈 .05)와만 부적 관련이 있었고, 성실성은 음주동기의 모든 변인 및 음주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신경증적이고, 외향적일수록 음주동기 및 음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화적일수록 동조동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주동기의 모든 하위요인인 사교동기(r = .619, p 〈 .001), 동조동기(r = .366, p 〈 .001), 대처동기(r = .583, p 〈 .001) 및 고양동기(r = .544, p 〈 .001)는 음주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즉, 대학생의 음주동기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독립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각각 10 이하(1.176-3.762)와 0.1 이상(0.266-0.850)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Table 1〉 Intercorrel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rink motivation and drinking behavior

(N = 210)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1. neuroticism	1									
2. extroversion	-.056	1								
3. openness	-.041	.380***	1							
4. agreeableness	.080	.446***	.222**	1						
5. conscientiousness	-.134	.339***	.338***	.314***	1					
Drink motivation										
6. social	.147*	.243***	-.009	.053	-.106	1				
7. conformity	.145*	.033	-.177*	.031	-.182**	.698***	1			
8. coping	.314***	.158*	.068	.016	-.007	.551***	.314***	1		
9. enhancement	.152*	.188**	.125	-.022	-.057	.745***	.514***	.544***	1	
10. Drinking behavior	.152*	.214**	-.038	.038	.050	.619***	.366***	.583***	.544***	1
M	2.51	2.60	2.62	2.93	2.66	2.97	2.10	2.25	2.30	9.32
SD	.55	.49	.38	.37	.43	1.06	.77	1.06	.97	7.39

*p 〈 .05. **p 〈 .01. ***p 〈 .001.

2.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경증(β = .178, p 〈 .01)과 외향성(β = .304, p 〈 .001)만이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10%이었다. 그 외 개방성, 친화성 및 성실성은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2). 즉,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신경증적이고 외향적일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redicting drinking behavior

(N = 210)

Predictors	Drinking behavior	
	B	β
neuroticism	2.408	.178**
extroversion	4.572	.304***
openness	-2.793	-.142
agreeableness	-1.914	-.096
conscientiousness	.831	.049
R^2	.096	
F(df)	4.346**(5)	

**p 〈 .01. ***p 〈 .001.

3. 대학생의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교동기(β = .433, p 〈 .001)와 대처동기(β = .322, p 〈 .001)만이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47%이었다. 그 외 동조동기 및 고양동기는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3). 즉, 대학생이 사교적인 동기가 강하고 대처능력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llege students' drink motivation predicting drinking behavior

(N = 210)

Predictors	Drinking behavior	
	B	β
social motivation	3.017	.433***
conformity motivation	-.787	-.082
coping motivation	2.258	.322***
enhancement motivation	.671	.088
R^2	.474	
F(df)	46.123***(4)	

***p 〈 .001.

4.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Table 4), 사교동기와 관련하여 신경증(β = .145, p 〈 .05), 외향성(β = .357, p 〈 .001) 및 성실성(β = -.168, p 〈 .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2%이었다. 대학생의 개방성(β = -.180, p 〈 .05)과 성실성(β = -.170, p 〈 .05)은 동조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9%이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신경증 및 외향성은 대처동기(신경증: β = .335, p 〈 .001, 외향성: β = .221, p 〈 .01) 및 고양동기(신경증: β = .166, p 〈 .05, 외향성: β = .258,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각각 14%와 10%이었다. 즉, 대학생의 성격특성으로 신경증과 외향성이 높고 성실성이 낮을수록 사교동기에 의한 음주동기가 더 높아졌고, 개방성 및 성실성이 낮을수록 동조동기에 의한 음주동기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신경증적인 특성과 외향적인 특성이 높을수록 대처능력을 위한 동기나 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한 동기에 의한 음주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redicting drink motivation

(N = 210)

Predictors	social motivation		conformity motivation		coping motivation		enhancement motivation	
	B	β	B	β	B	β	B	β
neuroticism	.283	.145*	.168	.119	.648	.335***	.296	.166*
extroversion	.771	.357***	.225	.143	.475	.221**	.510	.258**
openness	-.201	-.071	-.370	-.180*	.074	.026	.266	.103
agreeableness	-.142	-.050	.105	.050	-.321	-.112	-.360	-.137
conscientiousness	-.410	-.168*	-.302	-.170*	-.026	-.011	-.255	-.114
R^2	.124		.086		.140		.096	
F(df)	5.780***(5)		3.849**(5)		3.849**(5)		3.778**(5)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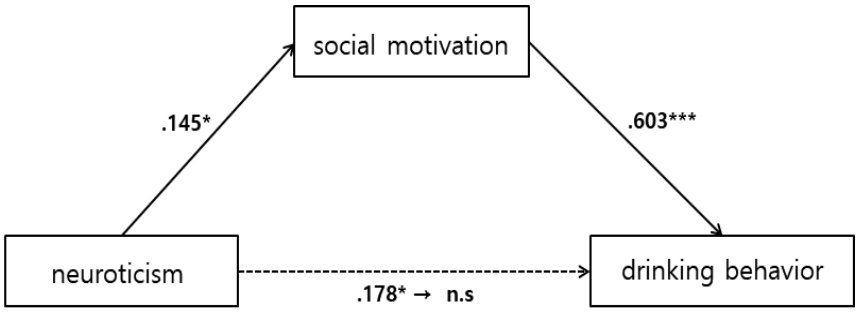
5.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음주동기의 매개적 역할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음주동기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가지 단계에 의한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 조건들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등 세 가지 경우에서의 유의한 관계가 충족된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 경우가 해당되었다. 이어서 3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음주동기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매개변인인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2단계에서는 음주동기가 종속변인인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동기를 동시에 투입한 후,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4가

지 경우 중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이 3가지, 부분 매개적 역할이 1가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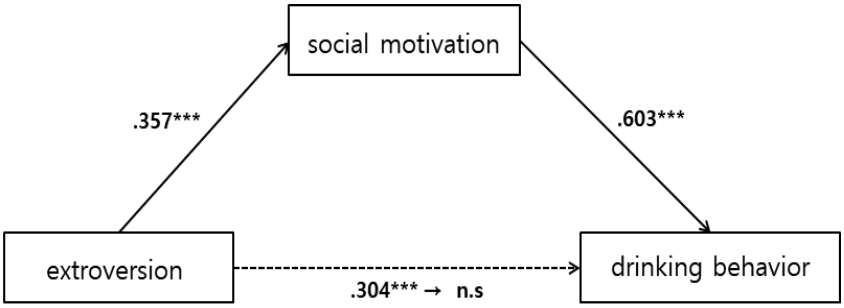
1)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의 매개적 역할

먼저,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사교동기를 함께 투입했을 때, 신경증(β = .178, p 〈 .05 → n.s.) 및 외향성(β = .304, p 〈 .001 → n.s.)은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신경증 및 외향성이 사교동기를 통해 음주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신경증: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2.132, p 〈 .05, 외향성: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4.185, p 〈 .001). 즉, 대학생의 음주동기 중 사교동기는 대학생의 신경증 및 외향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Figure 1, 2).



*p 〈 .05. ***p 〈 .001.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neuroticism and drinking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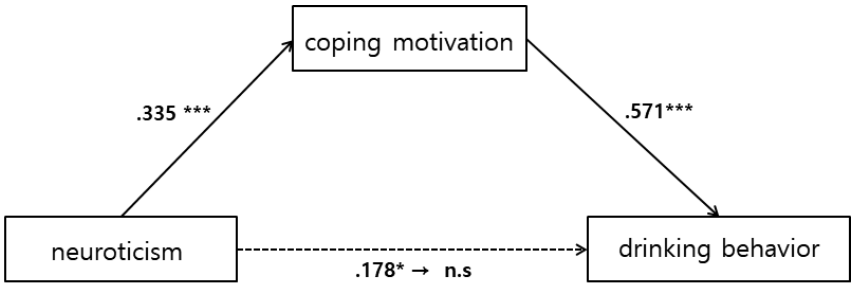
***p 〈 .001.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xtroversion and drinking behavior

2)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처동기의 매개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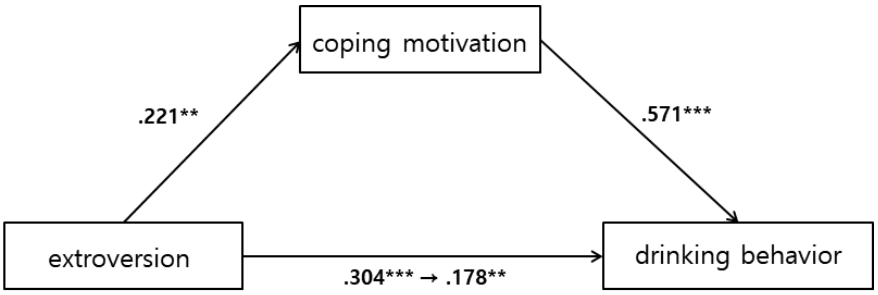
먼저,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대처동기를 함께 투입했을 때, 신경증은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더 이상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β = .178, p 〈 .05 → n.s.), 외향성은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β = .304, p 〈 .001 → β = .178, p 〈 .01).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신경증 및 외향성이 대처동기를 통해 음주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신경증: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4.472, p 〈 .001, 외향성: $Z_{ab} = \frac{ab}{\sqrt{a^2 S^2{}_b + b^2 S^2{}_a}}$ = 2.726, p 〈 .01). 즉, 대학생의 음주동기 중 대처동기는 대학생의 신경증과 음주행동은 완전매개역할을 하였고, 외향성과 음주행동은 부분매개하였다(Figure 3, 4).



*p 〈 .05. ***p 〈 .001.

〈Figure 3〉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neuroticism and drinking behavior



**p 〈 .01. ***p 〈 .001.

〈Figure 4〉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xtroversion and drinking behavior

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동기, 음주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의 음주동기는 부정적 음주행동에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성격특성 및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 연구결과들(김종임, 2017; 박경민과 이민규, 2005; 박재영과 박상진, 2016; 이규영과 이상익, 2000; 홍다솜과 양난미, 2013)과 일치

한다. 특히, 대학생의 음주동기 중 사교적 동기와 대처능력 동기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사교동기에 의한 음주를 많이 하며(김맹진, 2009; 박재영과 박상진, 2016; 탁진국, 2000), 대처동기가 문제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김종임, 2017)이라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사교적 활동이나 모임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음주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교 때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로, 학업과 취업 등의 다양한 부담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음주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사교활동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음주를 접해왔고, 이러한 동기가 음주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음주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정원철, 2006), 이 시기에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도구로 음주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는 대학생 시기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 이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음주의 동기를 이해하고 이러한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특화된 보건교육의 개발과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기존 연구에서 음주 외에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유머의 사용이나 대인관계기술훈련, 명상, 이완훈련, 마음챙김 등의 정서조절 방법(김나경과 양난미, 2015)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행사에서 음주가 하나의 의례적 의식으로 인식되는 대학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성격특성은 음주동기 및 음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동기, 음주행동의 관계에서 신경증적이고 외향적인 성격특성의 대학생일수록 음주동기 및 음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적 경향성(김나경과 양난미, 2015; Littlefield et al, 2010; Malouff et al., 2007; Martin & Sher, 1994; Ruiz et al, 2003)과 외향성(배성희와 양난미, 2015; 서경현과 조은희, 2010; 탁진국, 2000)이 문제음주와 연관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외향성이 높은 경우 음주문제를 덜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노안영과 정민, 2003)와는 다소 상반된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신경증적 경향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음주문제와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김나경과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음주행동을 예방하고 개입하는데 있어 신경증 성향이 높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대학생의 신경증적 특성은 음주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교동기와 대처동기를 통해 음주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신경증적 특성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도구로서 술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격특성의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동기로 인해 음주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심화 또는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이들이 어떠한 동기를 갖고 음주를 하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성격특성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할 때, 신경증적 특성을 가진 대학생들에 대하여 음주동기에 개입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이들의 사교동기와 대처동기를 음주 이외의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특성, 음주동기 및 음주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된 연구결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외향성은 음주동기 및 음주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음주동기의 모든 하위요인인 사교동기, 동조동기, 대처동기, 고양동기 모두가 음주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외향성만이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교동기와 대처동기가 음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대학생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 외향성 및 성실성이 사교동기에, 개방성과 성실성이 동조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경증 및 외향성은 대처동기 및 고양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교동기의 매개적 역할을 보면 대학생의 음주동기 중 사교동기는 대학생의 신경증 및 외향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또한 대처동기는 대학생의 신경증과 음주행동을 완전 매개하였고, 외향성과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성격특성, 음주동기 및 음주행동의 각각의 변인들과 관련된 단편적인 연구들을 통합하여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고,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음주동기를 매개로 하여 어떻게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어 있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남녀 대학생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대학생 시기와 성인기를 거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음주동기와 음주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종단연구를 통해, 성인기의 관문인 대학생 시기의 음주가 이후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나경,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신경증적 경향성과 음주문제 사이의 관계: 자기조절과 음주동기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265-282.
2. 김맹진. (2009). 개인의 가치가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음주자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4), 376-384.
3. 김용석. (1999). 국내외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해 한국성인의 알코올 사용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7, 78.
4.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10). Data Mining을 이용한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 요인에 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75-95.
5. 김종임. (2017).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8(5), :497-506.
6. 노안영, 정 민. (2003). 대학생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담학연구, 4(1), 5-18.
7. 박경민, 이민규. (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77-29.
8. 박재영, 박상진. (2016). 대학생의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17(3), 27-38.
9. 박아름. (2015). 대학생 문제음주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지속적 문제음주자의 심리 특성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0. 배성희, 양난미. (2015).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성격 5요인, 음주효과 기대, 예방행동전략: 음주동기의 군집비교, 상담학연구, 16(2), 213-232.

11. 서경현, 조은희.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성인의 음주동기 문제음주 간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2), 51-62.
12. 신원우, 유채영. (2007). 음주동기 유형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63-387.
13. 신행우, 한성열. (1999). 음주동기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77-92.
14. 양난미. (2010). 성, 음주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문제 이해. 상담학연구, 11(4), 1707-1727.
15. 유태용, 이기범, (2004). Ashton.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16. 이규영, 이상익. (2000). 대학 신입생의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9(2), 157-167.
17. 이영복. (2014). 음주유발요인과 역기능적 신념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18. 임선영, 고은영. (2017). 경계선 성격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 긴급성과 부적응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4), 81-101.
19. 장수미. (2017).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의 관계: 자가처방가설의 검증. 보건사회연구, 37(1), 5-33.
20. 장수미, 경수영.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4), 518-546.
21. 정원철. (2006).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와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8(1), 347-372.
22. 정주리, 김은영, 이유정, 최승애, 김정기. (2015). 대학생들의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 우울,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2), 293-308.
23. 조은지. (2016). 정서조절곤란과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사무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4. 탁진국. (2000).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73-83.
25. 통계청. (2016). 연간 음주율 추이. 서울: 통계청.
26. 홍다솜, 양난미. (2013). 대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정도의 관계에서 예방행동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32(4), 931-948.
27. Clerkin EM, Barnett N. (2012). The separate and interactive effects of drinking motives and social anxiety symptoms in predicting drinking outcomes. *Addictive Behaviors*, 674-677.
28. Cooper ML. (1996).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17-128.
29. Cooper ML, Russell M, Skinner JB, Frone MR., Mudar P. (1992). Stress and alcohol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139-152.
30. Cox WM, Klinger EA. (1988).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5-180.
31. Foster DW. (2014). Drinking identit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weekly alcohol consumption among heavy drinking undergraduat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9(12), 1811-1815.
32. Grant A, Brown B, Kacvinsky L, Moreno M. (2011). Drinking to make friends: A mixed methods approach to exploring the links between alcohol use and social motives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2), 73-74.

33. Kuntsche E, Knibbe R, Gmel G, Engels R. (2005). Why do young people drink? A review of drinking motiv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7), 841-861.
34. Littlefield AK, Sher KJ, Wood PK. (2010). Do changes in drinking motive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change and "Maturing out" of problem drink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1), 93-105.
35. Malouff JM, Thorsteinsson EB, Rooke SE, Schutte NS. (2007). Alcohol involvemnet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meta-analysis. *Drug Education*, 37(3), 277-294.
36. Martin ED, Sher KJ. (1994).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alcohol use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81-90.
37. Ruiz MA, Pincus AL, Dickinson KA. (2003). NEO PI-R predictors of alcohol use and alcohol-related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1(3), 226-236.
38. Stewart SH, Morris E, Mellings T, Komar J. (2006). Relations of social anxiety variables to drinking motives, drinking quantity and frequency, and alcohol-related problems in undergraduates. *Journal of Mental Health,* 15(6), 671-682.
39. Theakston JA, Stewart SH, Dawson MY, Knowlden-Loewen SAB, Lehman DR. (2004). Big-Five personality domains predict drinking motiv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5), 971-984.